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역대상하를 읽을 것입니다. 사무엘 이 후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왕들이 계보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실패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각각 앗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읽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입니다.

역대상하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많은 부분들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하는 앞의 두 책과는 달리 주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중심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일들을 떠올리며 기록한 내용으로 많은 족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 왔습니다. 강력한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밟았던 과오를 다시 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무엇이 잘못 됐었는지를 돌아보며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조상들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전해주려는 마음에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역대기에는 많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과 그 근방의 여러 곳으로 끌려 갔다가 오게 되었지만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는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역대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족보는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대기를 기록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들은 그 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무한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분께서 마지막 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온 인류를 만드셨지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주시고 그 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 자신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단지 유한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써 인류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심판주로서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것은 오직 겸손한 자세일 뿐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나 결말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더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관심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시34:19)"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인 에스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황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가지 의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역대상 4장10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줌으로써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 앞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역대기는 좀더 종교적인 부분과 관련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뒤돌아 봤을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시도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주변의 여건보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은 높이 살만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도는 또 다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 한 것을 돌아보고 신앙 생활을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정비하였지마는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외형적인 종교생활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말라기에 보면 또 다시 허물어진 이스라엘의 신앙 생황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전의 조상들보다 더욱 심각해진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라기 1장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선과 죄악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며 배척하여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에서 잘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분의 은혜 가운데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갔지마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분의 말씀과 계명을 거역하고 불순종 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실패를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분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

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